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김동준(동덕여대)

1. 제 언
2. 日常이라는 용어, 개념, 그리고 한시
3. 소개로서의 일상과 그 역할: 17세기 중엽까지
4. 일상의 전면화, 다양화, 양식화 : 18세기 이후
5. 결 론

1. 제 언

일상이라는 ‘용어’가 기술적(descriptive) 어휘 수준을 넘어 학술상의 주요 ‘개념’으로 정착되고 문학영역에서까지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데는, 역사·철학방면에서의 성과가 다른 분야로 파급된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생활사, 일상사, 미사사 등의 분야를 개척하면서 이들은 삶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면을 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상이라는 개념을 매우 효과적인 거점으로 사용하였다. 자본주의 메카니즘 속에서 쳄바퀴처럼 지루하게 돌아가는 하루 생활을 일상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이를 통해 현대(도시)인의 삶을 비판적이게 만든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했던 마르크스주의자나,¹⁾ 지속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의식주, 교통수단, 도시 등)을 일상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이 인간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려 했던 프랑스의 아날학과, 평범한 인간의 행동·인식·관습 등을 일상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이런 국면들이 역사와 사회를 움직여간 중요한 변수였음을 조명한

1) 앙리 르페브르 저,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4 세계일보, 1990.

독일의 일상사 연구들이 그러한 예들이다.²⁾ 이들의 연구는 공히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추상적 이론 및 전체사회가 구성해낸 거대한 이념·메카니즘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상사·생활사가 지닌 미덕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 때의 미덕은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보다 밀착된 거리에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 그럼으로써 비인간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하찮아 보였던 삶의 지면이 정치·경제적 변동을 추동하는 만만치 않은 요인이었음을 밝힌 것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미시적인 것을 통해 거시적인 시야가 무시·간과했던 것들을 재조명하면서 거시사의 미달과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셈이다.

일상에 거점을 둔 타분야의 성과가 문학 분야에서도 그만큼의 무게와 논리적 전략을 갖춘다면 일상 연구는 긍정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일상이라는 미시적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삼아 전진하려는 전망이 긴밀하게 맞물리지 못한 형편이고, 그렇기에 부분과 전체를 잇는 축으로써 일상의 개념이 정밀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역사학 분야가 그러했듯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일상의 의미·범주·연구방식이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문학 연구자는 우선 이 일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부여의 문제부터 풀어내고, 일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거시적 전망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日常이라는 용어 개념 그리고 한시

日常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신조어이다. 오늘날 주로 현대인의 반복적인 삶을 지칭하면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전근대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갖게 쓰이는 낱말이 아니었으며, 독립적으로 쓰인 용례조차도 드물다. 중요

2) 알프 쿠틀케 외, 이동기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청년사, 2002)에 실린 정연식의 서문 참조.

한 학술 개념으로 인지된 지가 오래지 않은 용어인 것이다.

하지만 용어가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한국문학사에서 그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삶의 토대로서의 일상이 인간의 삶과 비례하는 역사를 지녔음은 불문가지의 일일뿐더러, 용어는 달라도 이와 유사한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조선 중기의 학자들이 썼던 ‘日新又日新’과 ‘簞食瓢飲’ 등은 일상과 관련된 문화적 용어이자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姜世晃(1712~1791)이 金弘道の 풍속화를 평가하며 ‘俗態를 옮겨 형용하는 데 더욱 능하여, 人生日用의 百千云爲라든지, 저 街路·津渡·店坊·鋪肆·試院·戲場 등을 한번 下筆하면, 사람들마다 손뼉을 치며 기이하다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 것,³⁾ 柳慶種(1714~1784)의 저술을 두고 ‘街巷俚野之談, 名物度數之分, 人生·日用·事爲·物情’ 등을 기록하였다고 한 것을⁴⁾ 보면, ‘人生日用의 百千云爲’ 및 ‘人生·日用·事爲·物情’이 요즈음의 日常과 상통하는 용어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하찮아 보이는 것으로서의 일상의 의의를 자각한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柳慶種이 ‘道란 尋常間에 내재하므로 먼 곳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⁵⁾ 朴趾源(1737~1805)이 ‘말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道는 豪釐에서 나누어지니 道라 할만한 것이면 기와 조각인들 어찌 버릴 것이냐’⁶⁾고 한 데서, 흔하고 하찮은 것에 도가 스며 있다는 범상치 않은 주장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런데 비슷한 대상에 대해 人生日用事爲物情, 尋常 등의 용어가 사용되다가, 요즘은 日常이란 용어가 번역의 과정을 거치며 학술적 개념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⁷⁾ 앞의 일상사의 예가 그러하고 현대문학에서 주로 인용하

3) 姜世晃, <檀園記 又一本>, 『豹菴遺稿』 권4, “尤長於移狀俗態, 如人生日用百千云爲, 與夫街路津渡店坊鋪肆試院戲場, 一下筆, 人莫不拍掌叫奇”

4) 姜世晃, <海巖柳公行狀草>, “街巷俚野之談, 名物度數之分, 必記錄而發明之, 人生日用專爲物情, 亦皆收拾筆墨間, 其中亦多有奇言至論”

5) 柳慶種, <又>의 제2수, 『海巖稿』 권6, “道在尋常豈遠須, 人惟溫謹始稱儒.”

6) 朴趾源, <孔雀館文稿自序>, 『燕巖集』 권3, “語不必大, 道分豪釐, 所可道也, 瓦礫何棄”

7) 참고로, 日常의 개념과 인접한 거리에서 私生活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령 『사생활의 역사』(번역본, 새물결, 2002, 전5인 틀 책임 편집한 필립 아리에스의 『사생활의 역사를 위하여』(『사생활의 역사』 제3권, 이영림 역, 33면)라는 글을 보면, 그는 ‘공적 인물(국가 영역)과 사적 개인(가정 영역)의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개

거나 사용하는 예들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日常이란 용어가 현대인의 삶을 해석하는 거점으로 이용되며 매우 다른 의미와 색깔을 띠게 되었다. 예컨대, 성격상 신선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과 구별하여 지루하고 사소하고 개별적인 것, 계층(급)상 위인·상층인들보다는 범인·하층인과 관계를 맺기 적당하다는 것 등의 새로운 의미가 이 개념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배경에, 현대의 비정한 메카니즘을 비판하려는 전체 위에, 군중들이 매일매일 일구어왔던 삶의 세부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것'으로 돌려주려 했거나, 혹은 '사소하고 고된 것'이 어떤 결함에서 비롯되는지를 분석하여 장차 '가치 있고 즐거운 하루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깃들여 있다.

그렇더라도 이 日常이란 번역어는 아무래도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용어사용의 오랜 관습을 따르자면 日常에서의 '常'은 가변성의 상대가 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常은 變과 짝이 되는 말로서, 이 속에는 애초 부정적 의미가 섞여 있지 않다. 凡常이라는 낱말로 혼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常은 대체로 常道·常人·常事·常用·常言·常行·常理·常情 등과 결합하여,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지속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우세하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日常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日常은 삶의 바탕을 이루는 일종의 그라운드 개념이다. 지루하고, 사소하고, 의미 없다는 뜻은 특정 연구자나 특정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된 결과이지, 그 자체에 내포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사한 대상에 대해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용어를 달리 하고, 또 그 의미를 달리 조정해서 쓰고 있는 현상은 그것대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 日常이란 용어를 가지고 문학사의 적층에 존재하는 문학작품을 균형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중립적 위치에

넘어 혼재된 시기에 私的 경향이 증대되는' 모습을 주시하며, 사생활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생활사의 관점에서 기술된 이 책의 내용은, 이데올로기 등의 거시적 역사가 아닌 현장적 삶의 역사를 추적한 역작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학과 맺어 놓은 거리는 적지 아니 멀다. 이런 결과는 애초 문학이 본질적으로 일상과 긴밀한 관계에 놓일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문학의 관점에서 일상을 바라보는 본고의 시각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작품 바깥의 인간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중립적 요소에 대한 시대적 반응을 상대화시켜 다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적어도 이 글에서- 흔하고 반복되지만 ‘삶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것’을 日常의 기본 개념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상과 범위는 의식주의 생존 조건, 건강과 질병 등의 신체 조건, 반복되는 노동과 놀이 등의 생활 조건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상의 개념과 대상을 이렇게 정리해둔다고 해도, 일상은 또한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지역·시대·계층 나아가 각각의 개인과 상황에 즉해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서민·사대부·승려·군인의 일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는 일상인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非常한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일상은 상대성과 유동성을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개념이다.

한시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한시의 담당층은 주로 사대부 지식인들로서, 그들의 일상은 다른 계층과 적지 아니 차이가 난다. 사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사대부가 서민의 일상을 포착하여 시화한 경우(예: 紀俗詩)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일상과 일상 아닌 것의 경계선이 무엇이나는 구체적 질문을 접하면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작품의 실제로 보더라도, 시인 스스로 일상과 비상의 경계선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면 모르되, 정작 그 스스로는 이런 구분에 구속되어 않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예들을 섞어 쓰곤 한다. 한시에서 무엇이 일상이나를 가려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자의 변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필자가 취하려는 태도를 밝히자면, 생활의 현장에서 필수적 요소를 이루거나 그 필수적 요소들이 조직해내는 작품 내적 정황과 장면을 일상의 범주에 포괄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일상은 한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특별히 일상의 가치와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일상을 근거로 새로운 제3의 역사를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미적 양식을 이루어온 한시 장르 내에서 이 일상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시 미학의 한 부면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에서 일상을 일종의 시금석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과제 역시 출발점에서부터 역설이 발생한다. 일상은 작품 바깥에서 겪는 흔한 것들이는데 정작 한시 작품은 심미적 활동을 수반하는 예술 영역이므로, 일상은 어쩔든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가와 작품이 요구하는 선택과 굴절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작품 안에 수용된 일상이란 이미 작가의 감수성과 안목에 의해 선택받은 대상이자 예술 장르의 속성을 통과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한시 작품 안에서 일상을 고찰하기에 적절한 위치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일상이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이것이 한 작家的 작품세계 혹은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등으로 간추려질 수 있을 것이다.

3. 소재로서의 일상과 그 역할 : 17세기 중엽까지

한시에서 일상을 언급할 때 흔히 붙는 의의가 소재의 확장이다. 일상은 시적인 소재에서 거리가 먼 非詩的인 소재로 간주되어 왔으면서도, 정작 이러한 소재가 등장하면 각별한 의의를 부여받았던 셈이다.⁸⁾ 그러나 이런 진단은 한편으로 일상이 얼마만큼 작품 안에 수용되기가 어려웠는가를 짐작하게 만든다.

16세기 이후 성리학에 정진한 학자들의 경우를 보자. 대표적인 인물인 李滉(1501~1570)의 한시는 무려 2,000수가 넘어가지만 이 안에서 생활현장의 일상적 행위와 사물이 열거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다음은 <溪齋>라는 시이다.

琴生이 떠 땀고 기둥 엮은 초당이
내 사는 남쪽 계곡에 있네.

8) 그러나 이런 평가는 문학 영역의 확장이라는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끌어낸 일상이 작품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숲 그림자 차갑게 창에 흔들거리고
 아지랑이는 앉은자리를 푸르게 비추네.
 요즘에는 고즈넉이 찾는 이도 없는데
 뜰 국화마저 잡풀 속에 가려져 있구나.
 아이 불러 깨끗이 청소시키고
 하루종일 깊숙한 데서 홀로 앉아 있네.
 손에는 한 권 책을 들고
 마음대로 뒤적이며 읽곤 하누나.
 이치라면 예나 이제나 한결같은 것
 맛있기가 기름진 밥 실컷 먹는 것 같네.
 일 지는 가을이라 마음이 아득해지니
 은거하는 즐거움을 알릴 필요 없으리.
 아서라 깊이 탄식하고 있노라니
 가을 바람 산 수풀을 흔들고 가는구나.
 琴生結茅棟 在我南溪曲 搖窓林影寒 照席嵐光綠
 爾來闌無人 蓬蒿翳庭菊 呼兒痛掃灑 終日坐幽獨
 手中一卷書 隨意繙且讀 有理古猶今 有味飢如沃
 悲秋自懷遠 考槃甘弗告 喟然長太息 商風振山木⁹⁾

산중의 삶을 배경으로 삼은 16구의 적지 않은 분량의 시이지만 이 속에는 의식주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이 호명되어 있지 않다. 먹고사는 데 필요한 행위와 사물을 대신하여, 산중에서 학문에 매진하는 학자의 생활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학자 시인의 생활은 아이를 불러 깨끗이 청소시키고, 책을 읽으며 고인과 교감하려는 시인의 모습으로 보건대, 낫과 호미, 오곡과 채소, 요리와 의복 등 생계와 연관된 사물과 거리가 멀다. 정결한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 시인은, 속되어 보이는 일상 행위와 사물을 가려낸 자리에 정갈하고 깨끗한 사물을 선택해 놓은 셈이다.

이황의 시에서 이만큼이나마 하루의 삶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예는 찾기

9) 李滉, 『退溪集』 본집, 권3.

가 어렵다. 이는 성리학에 매진한 다른 시인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띤다. 작품 바깥에서라면 그들도 생물학적 인간에서 출발했을 테지만, 작품 안에 놓인 시인의 자리에서, 이들은 대체로 ‘日新又日新’과 ‘簞食瓢飲’類의 俗態를 타지 않는, 日常의 聖化를 향해 나아갔다. 몸은 비록 일상에 바탕을 두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빈틈없고 간단없는 修身·修養을 체화하고자 하였던 대가로, 일상이 시의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일상의 정화 의식에서 벗어나면, 일상이 폭넓게 한 시의 소재가 될 것인가? 실제로, 성리학이 정착되지 않은 고려조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

먼저 李奎報를 보자. 그는 성리학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평가된 인물이자, 그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도 잡박함을 내포할 만큼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한시에서 일상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상의 부근에서 그가 소재로 즐겼던 사물들은 술, 순채국, 송이버섯, 꿀, 죽순, 거미줄, 매미, 등롱, 국화, 작약, 앵도, 동백 등으로서, 생계와 밀착된 사물들이 아니었다. 일상과 관련하여 <村家>(권2) 3수 짝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일상의 의의를 의식하였다기보다는 기속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重九日을 맞이한 촌가의 풍경을 묘사하였다.¹⁰⁾ 수확 철을 맞아 방아를 찧고,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촌가, 말과 소가 방축되는 들판, 일상의 풍경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은 결구의 태평성대의 모습(太平容)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제1수)

이규보의 뒤를 이어 일상을 살핀 만한 문인으로는 고려 말의 李穡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문장을 外道나 末技로 보면서도 무려 6,000수에 달하는 방대한 시편을 남겼던 바, 그 속에는 <村家>(『역주 목은시고』 1책,¹¹⁾ 242면), <晨澆>(4, 296면), <新米>(7, 182면), <紀事>(8, 265면), <敬童索

10) “斷煙橫處響村春, 深巷無垣刺樹重. 萬馬布山牛散野, 望中渾是太平容.”(제1수), “曉寒霜重織聲催, 日暮煙昏樵唱迴. 野老那知重九日, 偶逢黃菊泛濃醅.”(제2수), “山梨葉赤野桑黃, 一路風迴間稻香. 汲井聲中人響屐, 柴門不鎖月鋪霜.”(제3수)

11) 여운필·성범중·최재남 번역, 『역주 목은시고』 월인 2000~2004. 이하는 편의상 『역주 목은시고』의 책차와 면수만을 밝힘.

飯>(8, 278면), <紀事>(8, 334면), <蠶婦>(8, 379면), <樵童>(8, 379면), <農夫>(8, 380면), <漁者>(8, 381면), <詠磨>(8, 476면), <詠碓>(8, 477면), <詠鼎>(8, 478면) 등 일상과 근접한 여러 소재가 나타난다. 기행의 도중이나 거처 주변에서 접촉되는 사물 또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시화한 나머지 이런 시편들이 적지 않게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該博으로 지칭되는 그의 시세계만큼이나 그 내용이 또한 다양한 편이다. “밤 술은 석 잔이 좋고, 새벽 반찬은 한 가지가 편하네(夜酒三杯穩 晨餐一味便 : <村家>)”처럼 안온한 느낌을 드러내거나, 아내가 손수 차려준 밥 한 그릇과 새로 빚은 술을 들고 唐虞와 같은 태평성대를 체험하는 심리상태(<晨飡>)를 보여주다가도, 선물 받은 햅쌀로 밥을 해 먹으며 名利에 급급함을 스스로 경계하는 장면(<新米>), 젓먹이 아이를 보다가 母子의 도리 및 국가와 백성의 관계로 시상을 발전시키는 모습(<紀事> 8, 265면), 하루 종일 소꿉장난을 하다가 들어온 두 손자에게서 思無邪를 발견하는 모습(<紀事> 8, 380면) 등은 일상을 통한 성찰로 나아간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일상을 대하는 그의 시야는 蠶婦, 초동, 농부, 어부의 고생스런 삶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기도 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卽事>(2수중 제1수, 3, 386면)가 나온다.

뜰 가득한 산 그림자에 이끼 자국 푸른데
수레와 말이 이 먼 마을에 다다를 까닭이 없네.
우물물 긴느라고 도리어 문 밖에 길이 났으니
계집중은 아침저녁으로 구리동이를 이고 다니네.
滿庭山影綠苔痕 車馬無緣到遠村
汲井却成門外路 女奴朝夕頂銅盆

“먹고사는 일의 귀중함을 말한 것(言糊口之重)”이라는 세주가 달려 있는 시이다. 뜰에 이끼가 썩 있을 만큼 한적하고, 먼 시골이라 벼슬아치 왕래하지 않는 고적한 곳인데도, 마을 앞에 길이 난 까닭은 무엇인가? 물을 길러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환경이 그 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이

시에서 투시한 답이다. 그리고 보면 李穡은 풍경을 勝景으로 치장하지 않고, 풍경 속에 깃든 생존의 소중한 욕망을 읽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럴 때 이 시에서 일상이 차지하는 의미는, 발이 닳도록 길 위를 오간 인간의 발걸음이 삶의 존엄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지점에 놓인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 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일상이 작가의 성찰의 통과하며 시의 심층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전달방식의 문제이다. 즉 이 시는 일상이 중요하다는 敎誨를 표백하지 않으면서도, 한 쪽의 은유적 장면을 통해 주제를 여과하는 형상화의 수법을 검비하고 있는바, 주제 전달의 미적 표현 방식을 예증해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李穡처럼, 일상에서 심오한 주제를 감축하고 그것에 대한 심미적 표현까지 검비한 예는, 후대에 이르러도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차피 작품생산자로서의 시인이 일상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이고 보면, 일상과 밀착된 어휘가 이따금 시의 한 구절에 섞여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는 일상적 소재와의 우연한 조우가 시의 미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李好閔(1553~1634)의 <亂後弼雲春望>은 그러한 경지에서 음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황폐한 성에는 꽃 필 나무 하나 없는데
오로지 봄바람에 저녁 까마귀가 내려앉네.
냉이와 도라지 푸르고 푸른 옛 궁궐 길
봄날에 밭 갈던 농부가 금비녀를 줍는구나.
荒城無樹可花開 唯有東風落暮鴉
薺萁青青故宮路 春來耕 變得金叉

이 시는 일상의 소재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때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사물은 냉이와 도라지, 그리고 금비녀이다. 이중 냉이와 도라지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이고, 금비녀는 어느 기품 있는 여인의 특별한 물품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성격이 다른 대조적 사물이라 하겠으나, 이 사

이에는 도성까지 함락되었던 임진왜란의 비극이 행간의 매개로 설정되었다. 도라지와 냉이가 자라는, 늘 볼 수 있고 거닐 수 있었던 평범한 오솔길에서, 다시 봄이 되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주인 잃은 어느 여인의 금비녀를 줍는다. 작품은 전란의 참상을 열거하는 대신, 냉이·도라지와 금비녀의 대조로서, 여인의 자태를 앗아간 전란의 저린 아픔을 깊은 여운으로 남겨 놓았다. 이 때 이 행간에는 일상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스며들어 있다. 일상의 상실이 일상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따라, 이 작품은 일상적 소재가 어떤 자리에서 진한 여운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시에서 빛을 발한 일상은, 일상적 소재에 대한 뚜렷한 자각에서 포착된 것이라기보다는 한시의 수사학에서 발생한 奇緣처럼 보인다. 예컨대 이호민은 因物起興의 맥락에서 일상적 사물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지, 일상과 그 외의 사물 사이에 경계선을 긋지 않는다. 그에게 소중한 문제는 소재가 일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가 시의 성패를 나누는 요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란 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하는 일상의 특별한 가치가 여타의 작가들에게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일상은, 그 안에서 운신하고 그 맛을 달다고 여기는 작가들에게 보다 자주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金時習(1435~1493)이다.

『梅月堂集』¹²⁾은 그 목차부터가 다른 문집과 색다르다. 예컨대 권2부터 권7까지는 소재별로 작품이 분류되어 있는데, 일상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작품은 <居室>, <閑適>, <田圃>, <食物>, <菜>, <疾病>, <醫藥> 등이다. 다음은 <農家> 이다

벼와 기장 넘실대고 오이 덩굴은 늘어졌는데
촌사람 울타리에는 콩 꽃이 막 피었네.

12) 오늘날 전하는 『梅月堂集』의 善本은 선조 16년(1588)에 갑인자로 간행한 23권 11책본이다. 본고는 『국역 매월당집』(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을 참조하였다.

山城의 킁킁한 술을 담 너머로 넘겨주고
 水國의 향기로운 쌀로 달 아래서 밥 짓는다.
 뜰에 지는 꽃이 있어도 빗자루 잡기를 게으르게 하고
 집에서 취할 때가 없어 처마에 부딪히는 일이 적다.
 田家에서 참으로 진솔한 첫 번째 재미는
 동네 제사 끝나 마당에서 웃고 떠들 때라네.
 禾黍離離瓜瓞垂 野人籬落豆花初 山城薄酒牆頭過 水國香菰月下炊
 庭有落花慵執帚 門無劇飲懶當榴 田家一味真坦率 賽罷場頭笑語時

벼, 기장, 오이, 울타리, 콩, 막걸리, 쌀밥, 전가, 마을 제사 등,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나열된 시이다. 시인은 지금 이 농가의 주변에서 살고 있으며, 농가의 즐거움에 수평적으로 동참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시는 원거리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풍속을 관찰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장 안에서 현장을 묘사하여 현장의 생동감을 부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 점이 일상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근거이자 일상을 수용해서 얻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생동감을 강화시키기에 일상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대변해서 보여준 셈이다.

<農家>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상과 밀착된 거리에서 이를 즐거운 삶의 현장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¹³⁾ 虛景이 아닌 實景으로 문면을 가득 채우면서, 밥과 반찬, 부엌 요리, 토란국, 배추, 무, 채소, 살아갈 집을 등을 시어로 활용하고,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단위에서 삶을 충만하게 묘사하는 이 일군의 예들은, 그가 일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인생관의 한 부면을 드러낸다. <작은 술에 버섯을 볶으며(煮菌蔬於小鑪)>라는 작품의 말미에서, “인생은 삼만 육천일 / 즐거움도 잠깐 놀라움도 잠깐이라네. / 노구술에 지지는 나물 한 맛이 / 달콤하고 편안함만 어찌 같으랴? (三萬六千日 乍歡又乍驚. 何似鑪中蔬 一味和且平)”라고 했던 한 마디가, 곧

13) <居室>의 <蒼松檜以爲廬>, <閑適>의 <睡起>, <田圃>의 <遊圃>·<田家即事>(3寸), <食物>의 <話葫蘆>·<供廚何所有>·<食粥>·<盤餐>, <菜>의 <煮芹>·<野人烹岷芋有感>·<松菜肥>·<煮菌蔬於小鑪>·<話菜> 등을 들 수 있다.

일상을 대하는 그의 느낌을 압축했다고 할 수 있다.

하루의 삶이라는 미시적 단위에서 삶의 긍정적 의의를 발견한 김시습의 모습은, 위로 도연명의 田園閑居를 떠올리게 만든다. 여기에는 하루 동안 대하는 생활의 조건과 사물들, 자신의 활동 등을 비속하다고 여기는 시선이 배여 있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서 이 일상은 즐기는 대상이다. 편한 벗과 어울리는 것처럼, 삶의 그라운드로서의 일상에 심신을 포근히 포개고 있는 양상이다. 이 이면에 정신적 자유나 혹은 반대로 체념의 정서가 바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일상을 별도의 심미적 화폭으로서 작품화하겠다는 의식이나, 심상한 것들 속에서 도를 발견하겠다는 등의 의식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그의 일상은 체험에 순응한 자연발생적 성격이 강한 편이므로, 일상의 가치가 작가의 의식 속에서 또렷하게 자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4. 일상의 전면화, 다양화, 양식화 : 18세기 이후

대략 17세기 중기까지로 한정해 볼 때 이색이나 김시습처럼 일상으로 다가가서 일상을 시화한 시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 사이에도 田園詩·四時詞類나 농가의 풍정을 읊은 紀俗詩 등이 간헐적으로 제작되곤 하였으며, 李好閔의 예처럼 일상을 소재의 '일부'로 쓰는 시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계통은 한시가 그 끝을 맞이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18세기 무렵으로 접어들면 사태는 사뭇 달라진다. 수십 수에서 백 수를 넘는 連作雜詠이 나타나 일상을 대폭 수용한 예들이 나타나고 풍속적 관심에서 타인의 일상을 장편에 묘사한 작품들이 잦게 지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이 전대에 비해 전면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이루어 나간다. 더 나아가 편지와 일기 등 일상의 글쓰기 방식과 접합되어 새로운 시 양식이 모색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은 일상을 대하는 시인의 시각과 당대의 분위기가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李德懋(1741~1793)의 예부터 살펴보자. 다음은 <題田畝>(총6수 중 제1

수)이다.¹⁴⁾

콩깍지 더미 옆으로 오솔길이 나뉘었고
 붉은 햇살 막 퍼지자 소 떼가 흩어진다.
 娟青色 은 가을 든 산허리를 물들여 가고
 깨끗해라 비 갠 뒤의 구름이 먹음직하네.
 갈대 그림자 흔들흔들 기러기가 놀래고
 벗 잎 소리 외삭외삭 송사리가 쏘다닌다.
 산 남쪽에 살고픈 꿈을 이루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 빌려달라고 해야지.

荳殼堆邊細逕分 紅暎稍遍散牛群 娟青欲染秋來岫 秀潔堪餐霽後雲
 葦影拂幡奴雁駭 禾聲瑟瑟婢魚紛 山南欲遂誅茅計 願向佃翁許半分

이 시에 묘사된 대상은 田家의 일상 풍경이다. 언뜻 김시습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일상에 접근하는 감촉이 다르다. 일상 안에 놓인 자가 자기 체험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심미적 관점에서 하나의 예술적 대상으로 일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매우 섬세하게 색깔과 소리, 잘 다듬어진 시어를 구사한 까닭에, 일상이 곧 예술적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덕무의 시에서 일상을 별폭의 심미적 대상으로 묘사한 예는 <柴門有見>(『영처시고』 권2), <田舍雜詠>(『아정유고』 권2), <卽事>(『아정유고』 권3) 등이 더 있다. 이들에서도 다채로운 색상과 감각적 묘사, 섬세한 시어, 고운 시선 등을 공통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들로 한정한다면 그는 일상을 취하되 그것을 예술적 소재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형상하는 방법까지 고민했던 작가라 할 수 있다. 박지원이 <嬰處稿序>에서, ‘무관(즉 이덕무)은 조선 사람으로서, 삼한의 새나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 강원도 사내와 제주도 아낙의 성정을 그렸으므로, 이를 조선의 노래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을 것’¹⁵⁾이라 한 발언을 상기하자면, 그는 아마도 조선의 풍속을 개성적으로

14) 李德懋, 민족문화추진회 역, <雅亭遺稿> 1, 『국역청장관전서』II 권9, 1979, 199면

읽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인의 일상을 포착하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섬세한 시상과 시어로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시를 잘 보고 잘 지었던 채주와 안목이, 위와 같은 작품을 빚어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덕무의 수준은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趙秀三(1762~1849)의 시와 비교해보자. 다음은 <種扁豆西 蕪二首> 중 첫째 수이다.¹⁶⁾

섬돌 곁에 한 도랑 밤콩을 심어 놓고
 처마에 시렁을 대니 넝쿨이 타고 자라네.
 빼곡한 잎에 바람 머금고 눈처럼 흰 꽃이 피어
 한 나절 시원한 기운을 이 집에서 얻었구나.
 一畦扁豆種階傍 架起簷簾引蔓長 密葉含風花吐雪 高齋贏得半天涼

절구와 율시의 작법 차이를 무시할 수야 없겠지만, 이덕무·김시습의 작품과 비교하면, 일상을 독립적인 심미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시골살이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 김시습의 그것에 가깝다. 제2수에서 주렁주렁 삼백 개나 열린 수박이 갈증을 풀어준다고 한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작품이 김시습의 사례에 가깝다고 해도, 콩 심고 수박 심는 일상을 하찮지 않은 미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상을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맥락과 다르게, 묘사된 일상으로써 작가의 신념을 예시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용휴가 보여주는 시도에 이런 성향이 눈에 띈다. 다음은 <送申使君之任漣川 名光洙>(『惠寔居士詩集』) 6수 연작 중 제5수이다.¹⁷⁾

15) “今慰官, 朝鮮人也. (...) 若使聖人者, 作於諸夏, 而觀風於列國也, 攷諸嬰處之稿, 而三韓之鳥獸草木, 多識其名矣, 豨男濟婦之性情, 可以觀矣, 雖謂朝鮮之風, 可矣.”
 16) 박용원·박세영 역, 『조수삼 이상적 작품선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5, 212면. 둘째 수는 “霏微春雨土宜鋤 頗愧青門舊隱居 絳雪玄霜三百顆 炎蒸不怕病相如” 이다
 17) “世俗有恒言 文人无所用 公爲一洗之 使知文人重”(제1수), “漣川僻且小 其顯乃以人 請借日月石 照察民顛呻”(제2수), “字不着風月 語不及盃觴 惟說職所管 是爲眞文章”(제3수), “嬰兒喃喃語 其母皆能知 至誠苟如此 荒政豈難爲”(제4수), “水作靴紋皺 山如藍靛染 無暇搜詩料 惟檢

시골 아낙 두 마리 개를 데리고
 고리짝 수북히 새참을 내어갈 제
 혹시나 벌레가 국에 빠질까
 조롱박 잎을 덮고서 가네.
 村婦從兩犬 栲櫟盛午餼 或恐虫投羹 覆之以瓠葉

이 시는 1771년 申光洙(1712~1775)가 60세의 나이에 연천현감으로 나아갈 때 써준 시이다. 연작 전체의 주제는 목민관이 되었으니 백성의 부모가 된 자로서 음풍농월 일삼지 않고 선정에 힘쓰라는 것이다. 그런 문맥에서 돌연 위의 다섯 번째 시가 나오므로, 아낙이 남편을 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목민관의 마음이라는 속뜻을 담아 일상의 한 단면을 포착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전편을 敘景으로 일관하여 일체 情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이용휴에 대해 이덕무는 ‘月露花鳥의 無用한 문자만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는데,¹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극히 情을 절제하며 일상을 묘사해놓은 다른 시편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아낙은 앉아서 아이 머리 이를 잡고
 할아범은 구부정히 외양간을 치우네.
 마당에는 우렁 껍데기가 쌓여 있고
 부엌에는 마늘 대궁이 놓여 있구나.
 婦坐摺兒頭 翁偃掃牛圈 庭堆田螺殼 廚有野蒜本 (<田家>, 『大東詩選』)

이 작품도 田家の 일상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전편이 서경묘사로 이루

田豐儉”(제6수).

18) 李德懋, <清脾錄>, 『靑莊館全書』Ⅶ, “(<送鄭使君之任淵康>) 讀此, 可知不徒作月露花鳥無用之言也.” 이 구절이 <送鄭使君之任淵康> 등의 송별시를 평가한 문맥에서 나왔으므로 自然과 풍경을 제재로 삼은 시의 분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자료는 오히려 送別詩類와 더불어 月露花鳥類를 읊었던 저간의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無用’하다는 이덕무의 지적은 經國文字와 대별되는 표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용휴의 문학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은 月露花鳥를 제재로 삼은 이용휴의 한시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져 있을 뿐, 情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 효용론의 관점에서 훈훈한 민풍을 전달하기 위해 전가 흐릿한 풍경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독법에 따라서는 우의적 장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사람이란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살뜰히 제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이 시를 적절한 예증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의 머리를 매만지는 아낙의 마음, 외양간을 치우는 늙은이의 행위, 먹고 남은 우렁겉테기와 마늘 대궁 등은 인정과 민생의 기본을 이루는 일상의 요소이기에, 일부러 백성들의 삶에서 설득력 있는 장면을 형상화했으리라 추측되는 것이다.

별도의 심미적 영역으로서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거나, 삶의 실재를 톺아내 보여주기 위해 일상을 예증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이 시기는 시정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형상화되곤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창문이나 문틈을 통해 타인의 삶을 엿보는 행위들이다. <市記>(『鳳城文餘』)라는 희작 산문에서 李鈺(1760~1815)이 하루종일 문틈을 통해 저잣거리의 군중들을 관찰했듯이, 李彦瑱(1740~1766)은 변화한 서울 거리의 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 <衢衢居室> 157수 연작을 짓는다. 이언진이 방 안에서 엿본 시야에는 당시의 서민군상과 생활상이 즐비하게 나오는데, 辟除하며 길을 터 나가는 이들(제3수), 길바닥에 똥·오줌을 깔기며 가는 소나 말(제4수), 쉼 새 없이 지껄이며 쌓여 모래 섞고 은에 구리를 섞어 파는 상인들(제10수), 밥 한 그릇 배불리 얻어먹고서는 도리어 출근하는 승지를 축은히 여기는 거지(제12수) 등 시장통에서 살아가는 못 사람의 일상사가 버젓이 걸려들어, 마치 서울 거리를 모자이크한 듯 연작시를 연출하였다. 왠지 지껄한 시정 거리를 소재로 삼아 세태비평 연작시를 구성한 이언진의 사례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얼마만큼 평범한 시정인들의 일상에 흥미를 가졌는지 대변해준다. 바야흐로 깨끗하고 고운 것이 시의 소재로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생계를 걱정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일상이 시의 문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언진이 도회의 한 가운데서 타인의 일상을 엿보았던 데 비해, 그보다 선배인 유경중은 경기도 안산에서 유사한 시도를 했다. 그는 <襍詠抒情至百篇而止 豐然回首 無乃荒於詩乎>, <六言一百十首>, <夏日紀感 敘事 得

絶句五十首 謹拜呈沂溪下執事 丙戌>, <追記月前所作 又五十首并錄 呈仰 供閑寂中一粲 漫無足存 眞所謂村夫會談體也 第不勝愧悚之至>, <有感七絶>(121수), <申用黃字韻 壬寅四月 前後共一百首> 등에서 보듯 100수를 넘는 잡영을 서슴없이 썼던 사람으로, 안산 정재골의 일상을 마치 촌부의 情談처럼(村夫會談體) 가볍게 터치하였다. 다음은 53제작 <有感七絶>(121수) 중의 한 수이다

저자 갔다 牛山에서 돌아온 이가
 “쌀값은 폭등했고 소금값은 싹니다” 하네.
 또 “어젯밤에 바람이 사납게 불었으니
 생선은 한 마리도 먹을 수가 없겠구려” 하네.
 趁墟人返自牛山 米價跳騰鹽價寬
 更說前宵風勢惡 海魚難得一鱗看 (제85수)

이 시는 흐릿함이나 아름다움이라는 심미적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물가와 식생활의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을 취재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美醜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까닭에, 자신과 타인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수백 편의 시를 할애하였다. 제초·移秧, 군대 징집, 소도둑, 乞僧, 농작물 피해, 사채놀이, 이장풍속을 위시하여 콩죽, 청국장, 고추장, 감기, 변비 따위의 식생활을 과감히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그가 생활백태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로서 미적 질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강세황에게 보내었던 <申用黃字韻 壬寅四月 前後共一百首>(『海巖稿』 권9)은 전편에 걸쳐 동일하게 黃, 陽, 長, 忙, 床字를 韻字로 사용한 칠언율시 연작인데, 對偶를 요건으로 하는 頸聯에서의 묘사가 이채롭다. “눈 온 뒤 골짜기의 범은 자주 마을을 엿보고 / 빗속에 스님은 쌀을 구걸하기 바쁘다(雪餘洞虎窺村數 雨裏山僧乞米忙 : 제7수)”, “山君이 밤에 내려오니 졸도둑이 그치고 / 걸객이 아침부터 오니 개가 짓느라 바쁘다(山君夜下儻兒息 乞客朝來吠犬忙 : 제21수)”, “떨나무꾼들 포구에 모이니 거래하는 돈이 넘

쳐나고 / 푸죽간은 사람을 속여 썩은 고기 파느라 바쁘다(樵擔集浦商錢湧屠儉欺人瘴肉忙 : 제28수), “계 회원은 서로 보답하느라 돈 걷는 일 잦고 / 취한 사내는 이유 없이 저잣거리를 휘젓느라 바쁘다(社員相答收錢數 醉漢無端趁市忙 : 제40수)”, “상선은 포구에 들어 일찌감치 소금을 팔고 / 田正은 마을을 돌며 수확 재촉에 바쁘다(商船入浦沽鹽早 田正行村勸稼忙 : 제69수)” 등에서 보듯이 일상을 원천으로 삼아 기묘한 댓구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세황이 ‘人生·日用·事爲·物情을 또한 모두 필목에 수습하였는데, 그 중에는 또한 기이한 대가 많다(人生日用事爲物情 亦皆收拾筆墨間, 其中亦多有巧對 : <海巖柳公行狀草>’고 했던 말을 연상시키는 예들로서, 일상이 단순한 소재 차원을 넘어 문학적 표현의 원천으로 여겨졌음을 알게 된다.

호기심의 대상으로서든, 비평의 대상으로서든, 고상한 인간에 대비되는 현실 인간들이 작품의 표면에서 횡행하도록 만든 이 잡영연작들은, 조선후기 문학의 변화를 한 눈에 짐작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적 양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일상을 작품 창작의 근거와 대상으로 삼아 일상을 비평하는 시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상의 문학적 양식화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되는 현상은, 편지와 일기라는 일상의 의사소통 방식이 시와 접맥되면서 새로운 소재와 미감을 수반하곤 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李匡師(1705~1777)의 편지시와 柳慶種의 日記詩이다.

1755년 乙亥獄으로 인해 함경도 부령에 유배된 이광사는 가족과의 유일한 소통수단으로 편지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당시 전주이씨 白軒公派 일문의 성인 남성들은 逆獄에 연루되어 모두 유배를 떠난 상황이었고, 이광사의 경우 아내는 자살하고 집에는 10 대의 아들 李肯翊·李令翊 및 7~8세의 딸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아들의 왕래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주 보내었는데, 이 속에는 장편의 고시 형식을 띤 편지 형식의 시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다. 다음은 며느리와 딸에게 보낸 <婦女思 十二月十日>(1755. 12. 10 : 『斗南集』)의 일부이다.

① 사월이라 숲은 우거지고 / 피꼬리 나무에서 지지귀던 날
 앵두는 막 익어 / 비단 깐 듯 반짝이는데
 큰며느린 깊은 가지를 들춰내고 / 작은며느린 먼 가지를 잡아당기어
 흰 손으로 푸른 잎을 덮으니 / 소쿠리에 구슬 같은 앵두가 가득.
 어린 딸이 갓 걷기 시작한 때라 / 언덕도 높다고 오르질 못해 / 새 언니 불
 러서는 손을 붙잡고
 풀 성하고 가지 많으면 가질 못하고 / 어린 시누 응석 제법 부리며 / 제멋
 대로 성내며 양탈부렸지.
 차가운 샘물에 앵두를 씻어 / 검붉은 목판에 담아 가지고
 무를 꿇고 시아비에게 바쳐 올리면 / 시아비는 앵두를 보고 즐거움이 세록
 새록

앵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 며느리들 바침이 예뻐서였네.
 ② 팔월이라 가을 기운이 돌면 / 동산의 밤송이가 터지려 하여
 선들바람만 불어와도 / 붉은 아람 떨어지니
 며늘아기 딸아이는 / 다투어 줍기를 즐거워했네.
 큰며느린 화로를 지키며 / 재 덮으며 정성스레 구워내고
 작은며느린 칼을 쥐고서 / 小鼓 모양으로 껍질을 벗기면
 어린 딸은 그 사이에 앉아 / 집어먹느라 입이 오물오물.
 “작은 아씨 다 잡수진 마세요 / 아버님 어머님 드릴 거예요.”
 해마다 날마다 / 날로 날로 즐거워
 태평성대 백성 되어 / 한가한 세월 송축하며 지냈더라네.

① 四月林楸 黃鶯號樹 櫻桃始熟 爛若錦鋪 大婦探深枝 小婦引遠條 綠葉護素
 手 筐筥滿瓊瑤 幼女始行走 原高不得上 呼嫂來携手 艸盛多荊棘未遽往 能作
 小姑嬌 作聲恣話讓 灑櫻寒泉水 歸盛髦髻裡 長跪薦丈人 丈人見櫻愛樂新 非
 爲見櫻愛 爲愛新婦獻

② 八月秋氣入 園中栗殼綻 微風至 紅實落 婦與女 爭拾爲樂 大婦守火爐 添¹⁹⁾
 灰勤煨炙 小婦秉鸞刀 剝皮與小鼓 幼女坐兩間 取食不停口 小姑莫盡食 將以
 進舅姑

19) 원문에는 楸으로 되어 있으나 정량원이 이 글자로 수정하였다.

이 시는 부령에 유배된 지 대략 여덟 달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머느리들이 시집오던 날을 회상하는 대목의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다. 이후로는 “머늘아가야 딸이야, 울지 말거라 / 울지 말거라(婦與女 莫垂淚 / 莫垂淚)”를 반복하며 애절하게 위로하는 장면을 지나,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위의 시는 편지의 기능을 바탕으로 삼아 수-발신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의 친근한 장면을 확대시킨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앵두 따던 날, 밤송이 줍던 날의 정겨운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였으며, 편지의 친근한 화법을 반영한 듯 구법도 장단구의 형세를 취하며 口語的 語氣를 띠고 있다. 말하자면 편지 양식과 시 양식이 혼용되어 시의 소재, 화법, 분위기, 형상을 재조직하게 만든 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발신자간 친밀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 일상의 생생한 장면들은, 필자의 과문을 전제로 할 때,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현상이다. 물론 집 떠난 이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며 시를 부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가령, 변방의 李安謨가 어머님에게 부친 <寄家書>와 같은 명편은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절구라는 짝막한 형식 때문에 이처럼 일상을 확대할 수 없었다. 또한 대다수의 유배자들은 주로 잘 있노라, 어떻게 지내노라, 무엇을 부탁한다는 등의 의례적인 사연을 전달하거나, 유배지에서 공부한 학문적 내용을 토로하고자 하는 편지를 남기기 일쑤였다. 그에 비하면 이광사의 예는 가문의 성인 남성들이 모두 유배된 특수성 탓에 가문의 여성들을 자주 수신자로 삼아야 하는 처지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시의 중요한 자질로 삼았던 특별한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광사에게 일상은 곡진한 人情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자각’되었던 듯하다. 유배지에서 그가 쓴 글들을 보자면 그는 ‘自得機發’(<蘇齋東溟詩說 九日>, 1756. 8. 9)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문장의 어려움은 심상한 글자를 잘 쓰는 데 있다. 시정 사람을 몰아다가 제어하여 모두 죽을 힘을 다하게 해야 한다(文章之難 在善用尋常字 驅市人而制之 皆可致死力 : <辯陳言 十二月十二日>, 1755. 12. 12)”는 이른바 ‘善用尋常字論’을 내놓는다. 고전에 대한 모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소 쓰는 말을 善用하는

것이 문장 짓는 법의 요체라고 한 주장인데, 이 尋常한 것을 시의 소재에 응용하자면 위의 시에 묘사된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점은 또한 친형 李匡贊이 『評斗南』이란 저작에서, 제발 시를 漢魏古詩처럼 질박하고 평이하게 쓸 일이지 왜 이렇게 ‘繁縟’스럽고 ‘誇多鬪靡’하게 짓느냐, 부녀자들에게 이런 시를 짓는 것이 타당한 처사냐, 단지 文戲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정중한 충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종내 반성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점에서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시적 실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상을 확장한 다른 편지시들을 주목할 수 있겠는데, 그 예로 <答女兒西菴子>(36 구), <二月晦日 感疾伏枕 倍念幼女 情不自聊 繞膝牽裾 嬌憐在目 強病臥草 須便遠寄 凡五百字>, <對月不寐 歷想舊遊 愴悵齋咨 情不可聊 曉起作五十韻詩 致同竄諸兄弟>, <上舍兄吉州謫中一千一百字>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二月晦日 感疾伏枕 倍念幼女 情不自聊 繞膝牽裾 嬌憐在目 強病臥草 須便遠寄 凡五百字>의 일부이다.

(서두 : 사랑스런 딸 모습 묘사 / 애지중지하던 나날

- ① 밤낮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 갖은 재롱 구경하기 괴롭지 않았네.
 풀잎에 손톱으로 무늬를 놓곤 / 비단이라 이름지어 장사 시늬도 하고
 고운 모래는 구슬을 삼고 / 색종이는 오려서 옷을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집을 엮고 / 주말 굽에는 응솔 가마솥 얹히는데
 꼭 어린 부부를 맺어 두고 / 씩씩하게 선 채로 내외를 정했었지.

(중략 : 소꿉장난하는 대목)

- ② 그릇은 거의 호두나 밤 껍질이고 / 밥그릇은 조개껍질을 썼지
 이것이 장차 孝梯의 시작이어서 / 웃으며 받고 야단치지 않았네.
 그런 대로 장난 삼아 먹는 시늬하고 / 배부르다며 두드리고 자랑을 하네.
 들다가 문득 수염에 걸리면 / 무안스럽게도 소반은 다 부셔졌네.
 응석이 지나칠까 다시 두려워 / 부지런히 행실을 가르쳤었지
 (이하 : 딸아이의 어릴 적 품성과 자태 / 이광사의 글씨를 따라 배우던 모습 / 성장한 모습 기대 / 딸에 대한 그리움 / 재회 소망 / 聖恩 四拜)

- ① 日夜不遠我 雜戲見無害 草葉爪成纈 號錦事買賣 明沙爲珠玉 綵紙爲衣帶
木片架棟宇 筥底撐鼎竈 必有小夫婦 長立奠內外
- ② 器多楸栗殼 飯盂用蛤介 將是孝悌端 笑受不喝退 聊戲若餽啜 誇腹如鼓大
舉態便攫鬚 羞媿盤盡碎 復恐嬌癡過 行實勤教誨

오메불망 딸을 그리워하던 중 인편을 기다려 부친 편지시이다. 감기로 병석에 누워 있자니, 무릎에 감겨들면서 옷자락을 끌던 어린 딸이 갑절이나 그리웠던지라, 무려 500자에 이르는 긴 시를 써 보내게 된 것이다. 그중 위의 단락은 딸아이와 함께 했던 일상을 세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앞의 예에서 보였던 바와 결이 비슷하다. 시상의 전개로 보자면, 간절한 정에 비례하여 사연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 아련한 기억을 따라 일상의 장면이 재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시는 이광사의 편지시에서 어떤 부분이 압권인지를 보여준다. 생사를 예측하기 어렵고 딸아이를 지켜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렇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그는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같이 소꿉장난을 나누고 수염까지 잡혔던 일상의 한 단면을 따옴으로써 몽클한 형상을 빚어낼 수 있었다. 앞의 이호민이 그랬듯이, 고난을 당한 인간에게 몹시 절실하게 되살아나는 대상은 특별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깃들여 있던 소박하고 따뜻한 나날이었음을 그 역시 실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광사가 일상의 소중함을 자각하면서 편지시의 신경지를 개척했던 데 비해, 柳慶種(1714~1784)은 日記를 한시에 응용하여 자기체험의 역사를 시화하는 길로 나아간다. <壬午七月初一日 風氣斗涼 天雨纒霽 雲景開豁 一碧萬里 襍花晚開 綵蝶飛翔 雀 啼 鶯 語 俱 可 樂 也 > (『海巖稿』 권4), <作暮 奴自京歸遇盜于芳霞嶺 被打傷 董生 所持馬亦免見失而還 可駭又異事也 初九日 > (『海巖稿』 권5)에서처럼 詩題에 日子를 표기하며 시를 쓰는 것인데, 그것이 1762년(49세)부터 72세(72세)까지 지속되었고, 추산컨대 무려 5만수의 방대한 양을 남기게 된다.

유경중이 시를 일기처럼 지었던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그는 李麟佐亂에 연루된 집안의 몰락 이후 극심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기에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秀作을 지어 타인에게 인정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 대신 ‘시속의 정이 나를 깨우르고 졸렬하다 비웃겠지만 내버려 둘 테다 / 나는 절로 한가로이 내 법을 쓰면 될 뿐이다’(<立春日賦 壬午十二月二十二日辰時 癸未立春> : 一任時情笑懶拙, 吾自婆娑用吾法) 라 하고 尋常間에 道가 내재한다’(<又> : 道在尋常豈遠須, 人惟溫謹始稱儒)는 관점에서, 사상과 시어를 세련되게 만들기보다는 마음 가는 대로 시를 쓰기를 즐겼다.

일기시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시는 생활의 기록이라는 속성을 갖추게 된다. 날씨와 기후, 어느 날 특기할 만한 일이나 목도이문, 각종 음식물, 건강과 질병, 손님맞이, 家間事, 물가, 농사일, 살인 사건 등 그야말로 그날 그날의 체험과 단상을 시에 쏟아 넣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50세작 <遇述 廿四日>(『해암고』 권5)와 69세작 <有客 八月十九日>(『해암고』 권9)이다.

기름장수가 수원에서 왔는데
 자칭 양반이라고 하네.
 작년에도 기름 팔러 왔었고
 오늘 다시 기름을 지고 이르렀네.
 내게 권하길, “書室에
 燈油를 빼놓을 수야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 살 수 없으니
 멀리서 팔러 왔는데 미안하구려.
 더구나 노안이 침침하여
 밤에 책 읽는 일 그만둔 지 오래라오”
 내가 백발이 많아진 길 보고 놀라며
 “왜 문득 작년이랑 달라진 게요”라고 묻네.
 “백발이야 진실로 막기 어렵지만

하던 학업도 갈수록 공소해지는 길요
 그대는 자력으로 영위할 수 있으니
 나 같은 독서인보다 낫구려”

賣油自水原 自稱兩班是 去年賣油來 今又負油至
 勸我書室中 不可闕燈油 貧家無可售 慚愧遠來求
 況復老眼昏 夜讀廢已久 驚我多白髮 問胡頓異舊
 白髮固難禁 宿業漸空疎 爾能自食力 賢於我讀書 <遇述 廿四日>

부평의 길손이 남양을 향해 가다
 이틀이나 굶고서 겨우 이곳에 이르렀네.
 박하나마 좁쌀 죽 한 그릇을 대접하니
 주인의 부끄러움은 참으로 비할 데가 없네.

객은 “주인양반은 집이 굉장하군요
 서책도 굉장하니, 부자인가 봐요” 하네.
 굉장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어쩔 수 없어
 해질녘 객을 보내자니 몹시 서글퍼지네.

부평은 기근이 안산보다 심한데
 병충해까지 들어 백성들 더욱 어렵다지.
 또 듣자니 우리 고을 두곡 사람들은
 대낮에 밭에서 소를 잃었다네.

이런 일 거듭 나타나 한두 번이 아니니
 밤중에 쇠뿔 훔치는 일이야 탄식할 꺼리나 되랴?
 富平客向南陽地 闕食二日僅到此
 粟粥一盂待之薄 主人慚愧實無比
 客言主家屋宏壯 書冊宏壯富者樣
 無奈家計欠宏壯 日暮送客頗悵悵
 富平荒歉甚安山 更有虫災民益艱
 又聞吾鄉杜谷人 白晝失牛于田間
 此事屢見不一見 夜中草竊何足歎 <有客 八月十九日>

기름장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길손에게 좁쌀 죽 한 그릇을 대접한 일, 이런 소재로써 과연 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하찮은 체험을 재현한 시이다. 일기의 속성을 반영한 듯, 사투리의 사용은 물론 구어체가 빈번하며, 시어도 다듬어 쓰지 않았다. 더구나 情景交融의 원칙이나 시의 형식미, 혹은 미추에 관한 변별의식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시는 이미 심미적 안목이나 상상력과 상관없이 쓰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일기를 쓰듯 흘가분하게 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그의 일기시는 그날의 체험을 따라 생활현장에서 소재를 취재하며, 당대의 범속한 삶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린다. 일상의 세부를 남김없이 들추어내면서 소재의 무제한적 확산을 피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일상을 포함한 당대의 풍속도를 그려낸다. 여기에서는 예술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 경제적 인간 등을 변별하는 경계가 보이지 않으며, 일상과 예술이 분간할 수 없는 스펙트럼처럼 존재한다. 경험의 주체로서 작가 개인의 체험을 구심점으로 삼고, 체험이 닿는 모든 요소를 원심력적 자장 안으로 끌어 들였다고 설명해야 할 마땅하다.

그러나 이 별난 새로움은 과연 문학적으로 성공한 것인가? 심각한 결함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소재의 경량화와 선별력 이완, 그로 인한 신변잡기화라는 유경종의 시가 갖은 최대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시가 응당 갖추어야 할 감동이나, 일기가 확보할 수 있는 반성력과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을 성공한 결과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상의 문제로 좁혀 말할 경우, 그는 기성의 시학에서 은폐하였던 일상의 세부를 전폭적으로 등장시킨 유례없는 작가라 할 만하다. 그 자신은 문장이 엽진 한 푼 못하다²⁰는 딱딱한 탄식을 내뱉으며 자신이 체험했던 일상을 시화하였으나, 이는 역으로 작가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우아하고 깨끗한 심미적 권역에서 온존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시대가 변화했음을 반증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일상의 위력을 실감해야 하는 시대에 살았

20) “風雨僅庇三椽 文章不直一錢”(〈六言一百十首〉 제59수), “文章不直一文錢 此翁白髮眞可憐”(〈杜陵丈又喪其長孫 世間寧有是乎〉, 권9, 69세), “床頭萬卷書 不直錢一葉 富人善爲農 貧者力未及”(〈記事 五月初一日〉 제6수, 권9, 69세).

던 셈이고, 그러한 현실을 억지로 회피하지 않았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 론

본고는 한시의 영역에서 일상이 어떻게 작품 안으로 다가왔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사를 개략적으로 종관하였다. 그 결과, 조선중기까지의 한시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채용되었던 일상이 18세기 이후에 다양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조명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학외적인 영역에서 작가가 일상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처했음을 뜻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추세를 오늘날까지 연장하자면, 대다수의 시민—특히 도시의 시민이 직면하는 삶에서 일상이란 이제 심히 지겹고 버거우면서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학내적 요인들로 부상하였다고 개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사가 보여준 바대로 일상이 문학 안으로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마지막까지 주목하려는 바도 그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철학적 각성과 심미적 여과를 거친 일상의 聖化도, 일상을 정당한 문학적 소재로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박지원이 말한바 ‘하찮은 것에서 도를 발견하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들, 그것과 접촉된 구체적 체험을 통해 삶과 시를 긴밀하게 융합시키는 방향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울러 일상을 벗어나는 포근한 감각으로 나아가거나(김시습의 예), 생존조건이 상실되고 파괴된 상황에서 이상향에 버금가는 무계로 일상의 회복을 동경하는 특수한 경우(이호민²⁾의 예), 또는 일상 그 자체가 삶의 심층한 주제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지점(이색의 예) 등은, 일상이 시의 내부에서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경지들이 여러 갈래로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다만 한시사를 비판하는 관점에 서건대, 이 일상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도정한 자각과 투철한 전망, 그에 걸맞는 실천이 문학사의 일정시기에 이르도록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한계로 꼽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18세기는 일상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보다 광범위하게 시도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이 시기는 일상이 전면화되고 다양화되며, 나아가 새로운 시적 양식으로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의 예술적 대상으로서 일상을 묘사했던 이덕무, 자신의 신념을 위한 예증으로서 일상을 예시하였던 이용휴, 잠영연작 형식을 빌어 일상 비평의 경지로 나아갔던 이언진과 유경중, 편지와 일기라는 일상적 글쓰기를 한시와 결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출현시켰던 이광사와 유경중, 이들은 일상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작품 안에서 일상을 전면 배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조선후기 한시가 일상과 밀착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자, 그들의 시대가 일상의 가치를 감축하고 의식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학적 전략, 각성 정도, 창작의 역량이라는 각 층위에서 작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이들은 공히 한시의 자장 내에서 일상이 취할 수 있는 존재 가치를 시현했다고 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한시에서의 일상의 비중과 역할을 검토하는 범박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필자가 미처 참고하지 못한 작품이 많았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풍속기의 맥락에서 포착된 일상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도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만하다. 작자층의 확대와 지변화의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자기 일상을 시역(詩域)으로 초대했는지, 그 실례를 어찌 이루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필자에게 떠오르는 과제는, 일상을 기준으로 삼아 한시의 미의식 및 한시사의 변천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작품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넓은 시야와 전망을 확보할까 하는 문제이다. 아마도 이 고민의 방향에는 일상을 개인적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문학 내적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작품 바깥에서 작동했던 시인의 위상변화와 삶의 조건, 그리고 당대인의 인식을 포괄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명제가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姜世晃, 『豹菴遺稿』
 金鑣, 『薄庭叢書』
 金時習, 『梅月堂集』
 朴趾源, 『燕巖集』
 吳世昌 편, 『大東詩選』
 柳慶種, 『海巖稿』
 李匡師, 『斗南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穡, 『牧隱集』
 李彦瑱, 『松穆館集』
 李用休, 『惠 寔居士詩集』
 李好閔, 『五峰集』
 李滉, 『退溪集』
 趙秀三, 『秋齋詩抄』
 『韓國文集叢刊』

2) 번역본

김시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국역 매월당집』, 1977.
 이규보,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동국이상국집』, 1980.
 이색, 여운필·성범중·최재남 번역, 『역주 목은시고』, 월인, 2000~2004.
 이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육전집』, 소명출판, 2001.
 이덕무,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청장관전서』, 1979.
 이용휴, 조남권·박동욱 역, 『혜화 이용휴 시선집』, 소명출판, 2002.
 이항,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퇴계집』, 1989.
 조수삼, 박윤원·박세영 역, 『조수삼 이상적 작품선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5.

3) 연구논저

- 알프 뤼트케 외, 이동기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 1990.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편집, 전수연 외 역, 『사생활의 역사』, 새물결 2002.
-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대상 祭文과 墓誌銘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57~82면.
- 김동준, 「李用休 漢詩의 理智的 性向과 새로운 詩的 型式」,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3, 257~284면.
- , 「18세기 한국한시의 실험적 성격에 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9~39면.
- 임주탁, 「조선조 시가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일상」,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83~99면.
- 정량완, 「李匡師論」,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84~226면.

K C I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Everyday in the *Hansi*(漢詩)

Kim, Dong-jun

This paper examined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everyday in the history *Hannun* (written Chinese) poetry. Yet the concept of the everyday and the methods of applying it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d the basic concept of the everyday as “things which are essential to the composition of life” and focused the discussion on what it contributes internally in *Hannun* poems.

The following points were covered in the discussion.

Firstly, with regard to the extent to which the everyday appears in *Hannun* poems, light was cast on the various aspects of the 18th century spread of the everyday, which had been introduced into *Hannun* poetry relatively rarely up until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is phenomenon in and of itself suggested a chang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poets found it increasingly more difficult to avoid confronting the everyday as time went on.

Secondly, with regard to the internal contributions of the everyday, light was cast on the various possibilities based on actual works. That is, the various states of the everyday were investigated, including the everyday as a prerequisite for consecration, the everyday as a comfortable friend of life, the everyday as an ideal that seeks a restoration of that which was lost, the everyday as an aesthetic object, and the everyday as an important subject in the world of life.

Thirdl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everyday into a poetic style, it was seen that it developed as a new poetic style in the 18th century in particular. Represented by the “critical style of the everyday” that united the everyday and miscellaneous poems, the “journal-style poetic form” that applied the everyday to poetry through the journal form, and the “epistolary-style poetic form” that combined letters and the everyday, developments of the everyday as a new poetic

style were valuable efforts that produced new styles and content in Korean *Hammun* poetry.

There are a number of possible methods of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eryday and literature. Yet if we consider the core nature of these works, the points examined in this paper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Hammun* poetr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works that were not examined in this paper, and these are full of possibilities and await new research.

Keywords : *Hansi*(漢詩), everyday life, miscellaneous poems, epistolary-style poetry, journal-style poetry, life poetry

접수일자 : 2005. 12. 22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

K C I

КСІ